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인쇄인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孫井植  
金在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TEL. 3673-2851~4  
568-6651~2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71號

THE FISHING PORT NEWS

2002年 3月 25日(月曜日) (1)

## 어선 계류시설 충족률 61%, 안전수용률 49% 어항 기능시설 크게 미흡 남·서해안 어항개발 시급

###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에서 분석

2000년말 현재까지의 어항 시설을 분석한 결과 이용어선의 계류시설 충족률이 61%로 약 6만 미터 이상이 부족하며, 항내 수면적을 고려한 어선의 안전수용률은 약 49%로서 어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어선의 계류 및 안전수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항협회는 정부 용역 사업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같이 분석, 현재 32%인 계획시설 완료율을 높

이기 위한 집중투자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에 비해 계획 완료율과 계류시설 충족률,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낮은 남·서해안 지역의 어항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20

톤 미만 소형어선을 위한 접안 시설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 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어항협회는 국내외적인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과거 30여년간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어항개발사업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그 성과에 대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어촌정주어항의 새로운 개발정책 및 방안 제시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을 수임,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새로운 어항 수요는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어항시설 뿐만 아니라 장래 계획된 시설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어항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지속적인 어항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 용역사업 성과물로 제출한 '전국 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 보고서가 수산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말할 여지없이 침체 일로를 걸어온 우리 수산계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직시하고, WTO 신체제의 출범에 대응한 어항 개발의 지속적 확대의 필요성을 현장 조사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째, 어항개발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대 전환과 둘째, 관광 레저 등 바다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어항 건설을 위한 개발 전략의 전면 재검토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 분석결과 전국 458개 항의 완공률은 연안항 78%, 국가어항 62%, 지방어항 22% 순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보여 줬다.

특히 어선 정박 계류시설과 급수급유 가공 등 기능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이에 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어항에 대한 수요 예측결과 그동안 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선을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58개 지정항에 대한 어선 수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현재 계획된 어항시설이 설사 모두 완공된다 하더라도 실제 어선 수용률은 7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어선 숫자에 비해 어항 숫자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동해안보다 남·서해안의 어항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 해양박람회의 유치 장소가 바로 남해안인 여수라는 사실은 자칫 우리 수산업계의 낙후된 모습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성급한 염려가 된다.

이러한 어선 안전수용률의 절대적 부족은 필연적으로 조업경비를 증가시키고, 수산업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물론이다.

게다가 앞으로 전개될 WTO 뉴라운드 체제는 어업인 정책 보조금 감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저것 특별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루라도 앞당겨 수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지상 과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해결 방안 역시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미비한 어항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실시하여 조기에 이를 완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울러 확연히 열세로 드러난 남·서해안 지역의 부족한 어항을 보충하기 위해 어항 추가지정과 함께 새로운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촌관광·교통·수산물 유통 등 생산성 있는 다양한 종합기능으로서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항을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대 조성 등 환경친화적 친수성 시설의 설치와 함께 편의시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의 개발은 어업뿐만 아니라 휴양·레저·관광·문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 증대는 물론 수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 소외감 및 박탈감이 심화된 어촌지역의 개발 불균형 해소와 도시집중인구의 분산을 유도,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항·어촌은 그곳을 찾는 도시 사람에게 신선한 수산물과 정신적 안정 및 휴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양공원, 인공해수욕장, 바다낚시터, 마리나 등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다양한 종합어항의 개발은 국민에게 괴적한 친수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매력 있는 해안 공간의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적 배려이다. 직접적인 해결 방안 없이 문제점 도출에만 끝난다면 이 연구는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항인들이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 또한 각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강화 완공시설 효율적 운영 2002 어촌종합개발사업 349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계속사업 24개 권역, 신규사업 6개 권역 등 총 30개 권역에 349억 8,000만원을 들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권역내의 소규모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 및 어업지원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완공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공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영지도 등 완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도별 권역별 투자계획은 부산 8억 5,600만원, 인천 23억 2,600만원, 울산 11억 6,600만원, 강원 27억 8,400만원, 충남 11억 6,600만원, 전북 11억 6,600만원, 전남 126억 2,400만원, 경북 40억 3,600만원, 경남 57억 5,800만원, 제주 30억 9,8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연근해 어장의 축소, 수산자원의 감소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해양오염, 적조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와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촌의 부족한 생산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킴과 아울러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의 어촌 중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큰 160개 권역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약 35억원(국

비보조 50%, 지방비보조 45%, 자답 5%)씩 총 5,432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까지 109개 권역에 3,265억원을 투자하여 총 1,795개소의 생산기반 및 소득원개발시설 등 각종 어촌숙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의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의 소득향상과 주민 생활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 2002년도 시·도별 어촌종합개발 투자계획

(금액 단위: 백만원)

시·도별	권역 수			사업비(백만원)			
	계	계속 사업	신규 사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30	24	6	34,980	17,490	15,741	1,749
부산	1	1	-	856	428	385.2	42.8
인천	2	2	-	2,326	1,163	1,046.7	116.3
울산	1	1	-	1,166	583	524.7	58.3
강원	2	2	-	2,784	1,392	1,252.8	139.2
충남	1	1	-	1,166	583	524.7	58.3
전북	1	1	-	1,166	583	524.7	58.3
전남	11	8	3	12,624	6,312	5,680.8	631.2
경북	3	2	1	4,036	2,018	1,816.2	201.8
경남	5	4	1	5,758	2,879	2,591.1	287.9
제주	3	2	1	3,098	1,549	1,394.1	154.9



# 소규모어항 개발 한시적 추진 지양

## 지역 잠재력 특성 고려한 종합적 개발 필요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지양되고 지역이 지난 잠재력과 특성을 고려,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용역으로 한국 어항협회가 제시한 어촌정주 어항 개발방안에 따르면 30만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터전이고 잠재적인 전 국민의 휴식처이기도 한 육지 소규모 어항은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환경 관리의 말단부를 점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환경의 보전과 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t;/



## 당뇨의 올바른 관리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식사

당뇨병 환자들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도, 또한 무조건 많이 먹어서 좋은 식품도 없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알맞게 먹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공급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억제하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좋은 식품과 식사법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 우리 몸에 필요 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알맞은 양을 먹는다 : 크게 비만하지 않고 보통 정도의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곡류군 : 남자의 경우 매끼 밥 1공기(210g)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자의 경우 2/3~1공기(140~210g) 이내 △어육류군 : 매끼 생선 작은 것 1~2토막(50~100g) 정도 △채소군 : 매끼 익힌 채소를 기준으로 2/3 컵 이상 △지방군 : 튀김 등의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고, 잣 땅콩 등을 과다하게 먹지 않으며 매끼 조리에 사용하는 기름 및 드레싱의 양이 2찻술을 이하 △우유군 : 하루에 1컵(200g) 정도 △과일군 : 하루에 사과 2/3개

(200g) 정도를 먹는다.  
◇ 규칙적으로 식사 : 당뇨병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면 과식하게 되어 혈당조절이 어려워진다.

◇ 설탕, 꿀, 잼 등 단 음식은 주의 : 설탕류를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체중증가 및 혈당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동물성 기름은 가급적 피함 : 동물성 기름은 가급적 피하고 대신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다. 육류를 이용할 때에도 기름은 모두 제거한다.

◇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 : 섬유소는 채소류, 해조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섭취한다.

◇ 싱겁게 먹는다 : 과다한 소금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는다.

◇ 술은 가급적 피함 : 술은 영양소가 전혀 없으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혈당조절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마시게 되면 종류에 관계없이 주 1회에 1~2잔 이내로 한다.

◇ 배고픔이 심할 때 : 생채소, 살짜 데친 채소류, 맑은 채소국, 미역 등의 해조류, 맑은 육수, 녹차, 흥차 등은 칼로리가 적으므로 공복감이 심할 때 이용한다.

### 보증인의 구상권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보증인이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신원보증법을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체결은 무효

이 주채무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겸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겸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은 가지고 있다.

###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 신원보증은 고용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 수가 있다.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 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 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일로부터 3년간

## 어·항·교·실

#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64]

## 第4章 地盤改良工

도시한다.

- (10) 확인보령 처리말뚝의 강도, 균일성, 착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법이나 내용은 (7)시험말뚝 확인보령과 같고, 시험실시의 재령은 28일이 일반적이다.
- (11) 오타방지를 떼내기 및 (12) 회향

는 타설 위치, 타설 깊이 및 계획지반의 착저성이다.

(1) 품질관리 지반개량말뚝내의 시멘트슬러리의 형태로 개량대상지반에 혼입되고 교반된다.

처리말뚝의 품질은 시멘트슬러리의 품질이나 혼입량 및 교반혼합의 정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시험공사를 하여 적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에서는 실내배합시험을 중심으로 다른 공사예를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시멘트슬러리의 품질관리
  - a. 공사시공전 시멘트, 모래, 물, 첨가제 등 사용재료의 계량이나 기록계 및 압송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한다.
  - b. 공사시공중 시공중의 관리는 계기기록에 의한 관리가 주체가 된다.

기록표 표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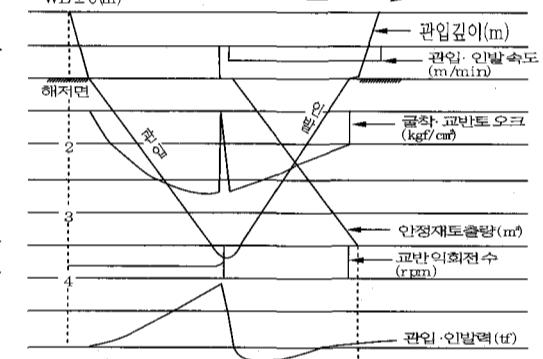


그림 4.5.12 펜레코더 기록의 예

과 동일하다.

- (13) 성토처리 처리말뚝 타설에 의한 지반의 성토량과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측량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측선으로 삼천측량을 한다. 또 성토는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5.4 시공관리

심층혼합처리공법의 시공관리시 품질관리는 말뚝본체에 혼입되는 시멘트슬러리의 품질과 그 혼연의 정도, 개량말뚝의 강도 및 인접하는 개량말뚝 사이의 접합성이다. 규격 관리로서

한 채무는 상속된다.

### 보증보험제도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이다.

○ 보증보험은 가압류, 거쳐분 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된다.

○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75%,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보증보험계약서와 약정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생활정보

정부

♣ 생활정보

정부

### 연대보증

○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